

1. **결산의 달:**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2. **헌신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제10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헌신기관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은 참여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3. **추계대심방:** 금주 추계대심방 구역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1/10일(화)-열린교회 개척예배, 11일(수)-25구역, 12일(목)-24,26구역입니다.  
 > 심방대원(장로,권사,구역장,심방장)은 오전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추수감사주일 및 성례주일:** 다음주 11월1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유아세례, 학습, 세례, 입교예식이 거행되며 성찬예식이 거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는 최지혁부목사님께 지원서 제출하시고 11일 수요일예배 후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답:**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자는 오는 14일(토) 오후6시까지 교회로 나오셔서 문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임시당회:** 학습세례 문답을 위해 14일(토) 오후5시30분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6. **개척예배:** 오는 11월10일(화) 오후2시에 금일을 열린교회(개척자-윤재곤목사) 개척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총회 3,000교회 운동 제35호 개척감사예배입니다.  
 > 10일(화) 오전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분은 오늘 주일까지 신청바랍니다.
7.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8. **소망경로대학:** 금주 경로대학이 13일(금) 오전10시에 진행됩니다.  
 > 금주 식사준비 봉사는 7, 8, 9, 10여전도회 연합으로 준비합니다.  
 > 경로대학 소풍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다음으로 연기하였습니다.
9.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김명관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 다음주는 유수중(황애자)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10. **각반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금요기도회:** 13일 금요기도회는 리브가 여전도회 특송, 기도 담당입니다(저녁8시).  
 >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12.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시행 일자별로 정했습니다.  
 > 각자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 접견실 및 기도굴에 온열난방 설치).  
 > 금주담당자: 김재환, 서진욱, 이병관, 박동수, 김용신, 이귀남, 임춘진
13. **2009년 추계부흥회:** 총력전도 및 부흥집회를 12월6일(주)부터 9일(수) 밤까지 안양신일교회를 담임하여 교회를 크게 부흥하도록 충성하신 윤광중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 **결혼감사:** 김요상장로(방봉순권사)님의 장남 김화중 군의 결혼예식에 참여 하여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가정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15. **신대원방문:** 담임목사님에게서 다음주 17일(화) 신대원 방문을 합니다.  
 > 고신 순교기념관 및 독립기념관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당회원, 안수집사회, 권사회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선착순 30명 모집합니다.  
 > 최지혁 부목사님께 신청바랍니다. 각 회비는 2만원입니다.  
 > 신학생 점심을 접대하고자 합니다. 1식 5천원(200만원)입니다. 동참바랍니다.
16. **다음주:** 추수감사주일, 성례주일,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17. **주일전도:** > 4남, 5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 1여, 2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18. **주일심방:** 박세중 김희중장로, 김복희 방봉순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19. **입원성도:** 성심병원(윤정희집사-319, 김금례집사-316, 최봉주성도-311)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접김이	인도자
9271	심숙자	리브가	6	월곡1동 569-1	010-2213-7367	이영희	스스로
9272	김진석	초등		월곡동 571-9	010-5354-7639	전순이	전순이
9273	황의석	초등		"	010-4055-4052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남은광교회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롬12:12)

담임 교역자  
손 중 기 목사  
(010-7283-8291)

제10여전도회 헌신예배

11월은 결산의 달

-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b>◆시무장로:</b>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박세중 송희중 옥 룡 김종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b>◆은퇴장로:</b> 윤 석 <b>◆ 찬양위원장:</b> 김문옥 ◆ <b>【할렐루야성가대】</b> <b>◆대장:</b> 옥룡, 지휘:최재현(오광록) <b>◆반주:</b> 박지혜 · 이은혜 <b>【마리아성가대】</b> <b>◆대장:</b> 김태석, 지휘: 김유영 <b>◆반주:</b> 전미영 · 계경숙	11/1-7	제121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
	9/28-11/24	가을대심방 실시-각 구역별 가정 심방
	11/1	제9여전도회 헌신예배
		2남, 3남, 리브가, 한나여전도회 전도주일
	11/8	제10여전도회 헌신예배
		4남, 5남, 1여, 2여전도회 전도주일
	11/15	추수감사주일-성례주일(유아세례, 학습, 세례, 입교)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청년부, 대학부, 3여, 4여전도회 전도주일
	11/22	중고등부, 아브라함, 5여, 6여전도회 전도주일
	11/29	각기관 총회, 당회

- ◆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 서재: 070-7430-3985 ◆ 목사관: 962-3301
- ◆ 부목사: 최지혁 ◆ 강도사: 문종승 ◆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 ◆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 하남은광홀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 회 자  
\*개회송영 ..... 성 가 대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23 (통23) .. 다같이  
\*성시교육 .. 제 45 문 .. 다 같이  
\*사죄확인 .....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31 (통46) .. 다같이  
기 도 ..... 1부 김명관장로

2부 김종철장로

성경봉독 ..... 룻 3:6-15(구404)

찬 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네가 누구냐?”

기 도 ..... 다 같이

찬 송 .. 545(통344) .. 다같이

봉 헌 ..... 다 같이

감사기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같이

\*축 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28(통48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 주일 오후 예배

[제10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정수경 집사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이가영 집사  
성경봉독 / 눅 8:1-3(신102)  
특 송 / 제10여전도회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섬기는 여인들”

헌금기도 / 575(통302) / 김계행성도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오후 7시~8시(요한복음)

##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송희중 장로  
설교: 손종기 목사

찬 송 / 235(통222) / 다같이  
대표기도 / 유금례 권사  
성경봉독 / 히 11:23-29(신366)  
특 송 / 제3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모세의 기도(2)”

헌금기도 / 220(통278) / 방봉순권사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 11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옥 룽
	2부	옥 룽 조윤희 장기술
안 내	조윤희 서진욱 박동수 이견옥 김준영 박종관 김영산 조선경 문채숙 김숙자 김숙경 권하숙 김순신 김점덕 서정옥 송숙란 신은숙 양선숙 우숙희 이현순 정순영 전운선 계경숙 양재숙 강춘자 정영옥 김혜정 김해진 양순옥 정영순	

다음주일 낮기도: ◆1부 김기태 장로  
◆2부 최상윤 장로  
다음 주 일 오후 기도: 옥 룽 장로  
다음 주 삼일기도: 김태석장로(4구역)  
다음 주 삼일기도: 이봉순 권사  
금주 11/14(토) 청소: 3남전도, 8여전도  
이번주(8) 식사당번: 18 ~ 21 구역  
다음주(15) 식사당번: 22, 23, 24 구역

##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김부현	9	14000		김요상	김요상	954-3319	남도시민교회/5만
	2	박영심	3	6000	23	황숙희	양혜숙	951-2437	곡성교회/15만
	3	유금례	3	10000	25	박복래	송희중	953-7579	서부은광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김태석	5	9000	22	신은숙	김태석	434-2827	나주신광교회/5만
	5	조춘자	5	21000	41	김순자	이현일	952-5880	서림교회/5만
	6	정경순	6	7000		김재립	이동만	953-0774	겸면중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조선경	5	10000		김순심	조선경	952-1672	심미교회/5만
	8	유길남	6	8000	298	박성희	박의하	954-4684	광덕교회/5만
	9	김혜중	5	7000	19	김복희	진영만	434-2902	연화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공점례	4	5000		이길례	신애란	452-2038	장산중앙교회/5만
	11	황생자	4	12000	21	박점순	최상윤	384-8475	연동은광교회/5만
	12	김담호	11	12000		교 회	손문옥	962-6487	운남평화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최정아	7	10000	215	최순희	김숙경	956-5064	구름다리교회/5만
	14	나 미	6	5000	27	김양선	서향임	951-2785	경동교회/5만
	15	대심방	6	6000		최옥기	최옥기	955-8951	금호동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신진성	5	6000		김숙자	김숙자	447-5214	영광교회/5만
	17	이봉순	8			황정선	조윤희	954-3784	장흥용산중앙/5만
	18	임춘진	2	2000		옥 룽	옥 룽	430-2360	노력도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문일환 목사/5만
	20	이준호	3	9000		이동만	이준호	952-8590	세계포도원교회/5만
	21	양인숙	4	9000		백인숙	한만희	956-0484	삼기중앙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중장로	22	교 회	4	6000	30	고진희	김문옥	954-2660	남악신광교회/20만
	23	이가영	3	6000		오영자	나오임	070-7522-8550	군선교연합/5만
	24	이복남	6	11000	25	김종철	김종철	953-9917	반석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장로	25	서점순	7	8000		박경희	서점순	961-8640	오치은광교회/10만
	26	송병기	6	2000	33	정수경	안영철	01050437055	기독교 방송국/15만
	27	손종기	2	5000	37	손우정	손종기	962-3301	기독교 방송국/15만
제10지구장 옥 룽장로	28	교 회	6	5000		교 회	서진욱	413-5357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8/1	정현아	3	5000		이병욱	전순이	01029997540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9	김막녀	5	10000	60	김경식	김성훈	952-3304	
제11지구장 김종철장로	30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조윤희	954-3784	
	31	권사회				권사회	이정자	952-9380	
	32	중등부				중등부	양지수	431-1198	선교사들을 위해
제12지구장 손종기 목사	33	고등부				고등부	이지훈	962-7727	기도와
	34	은광아남	25	10000		어린이집	임현옥	954-2360	물질로!
	35	대학부				대학부	진근모	01036852902	
제13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6	청년회				청년회	이현복	0116066073	우리는
	37	백두산업				백두산업	양순희	(055)964-1412	보내는 선교사
	38	영연스쿨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39	교 회	6	9000	70	교역자	최지혁	385-1320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홀로 일하셨으나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일에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뜻과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십시오.

### 1.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고전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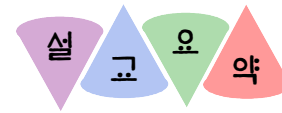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은 무언가 있는 것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만하여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보잘 것 없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어부들을 통하여 웅변가들을 사로잡으셨다”는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편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은 세상에서 문벌이 좋고 지혜가 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시8:2).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맡긴 일에 합당한 능력을 줌으로 그 일을 완수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미련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능히 큰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 3.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고전10:31).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3만 2천명의 지원자들로부터 300명의 용사를 가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병기와 많은 수의 군대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삶에 성공을 통해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미 아트?(룻3:6-15)

나오미의 계획을 다 들고 난 룯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잠자리에 든 보아스와 만나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또한 매우 적극적이어서 '기업 무를 의무'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에 관해서는 보아스 보다 더 가까운 근족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 1.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 룯이라 했습니다.

룻3:9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룯은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임을 알고 자신에게 기업을 무를 것을 믿고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 2.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모습에 일꾼들은 주인을 존경하고 따랐으므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기도하시며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 3.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는 인자한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보아스는 룯에게 앞으로 기업 무를 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이 틀림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증표로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룯에게 이뤄주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 4.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는 룯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모든 말은 바 일을 잘 해나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후에 예측대로 보아스는 룯과 나오미에게 한 언약을 지켰으며, 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룯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맺는 말

보아스는 자신이 룯을 사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근족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행하는 태도는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1.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 룯이라 했습니다.
2.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3.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는 인자한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4. 네가 누구냐? 고 질문한 보아스는 룯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조선 땅 영혼을 사랑한 존 로스 선교사 선교이야기>

-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 이야기는 금번 나의 중국 선교 여행의 최대 선물입니다. 이는 사람을 사용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재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라! 로스 선교사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일이 있는 지 오래지 않아서 압록강가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 왕성하게 성장해 갔던 것이다.

- 첫 한글 성경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다. -

1년에 몇 차례씩 만주 심양에서는 한 종이를 사고파는 장이 섰다. 이때 로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의주 청년 백홍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귀한 진리를 혼자서 간직하는 것보다는 고향 그리고 조선 땅에 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복음서를 반입해 보려고 연구하던 중, 고서 행상인으로 가장을 하고 심양에 나가 한 종이를 구입하여 한복판에는 복음서를 가득 채우고 가장자리에는 한 종이로 매꾸어 짐을 꾸렸다. 또 복음서를 낱장으로 만들어 끈을 해서 그 끈으로 밀봉을 하여 압록강을 건너는데 때 마침 그 날 국경선 보초가 잘 아는 친구여서 조선으로 성경을 반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백홍준은 그 길로 의주, 강계, 구성, 삭주 등을 다니면서 복음서를 나누어주며 전도하였다. 이때 백홍준의 전도를 받았던 의주 사람들 중 김이련과 그의 아들 김관근 등 33명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1884년에 의주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백홍준의 뜨겁게 역사하는 예배 인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1889년 압록강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의주 땅에 복음을 전파했던 백홍준은 1892년 외국인과 내통했다는 죄명으로 감속되었으며, 그 후 봉천 감옥에 수감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른 뒤 이 세상을 떠났다. 백홍준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의주 청년 한석진은 예수를 믿고 1893년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교회의 교사를 거처하면서 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만주에서 열병으로 죽을 뻔하였다가 로스 선교사의 소개로 영국 의사에게 치료받고 살아났던 서상륜은 로스 선교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 이음찬과 함께 한글 성서 번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가 심양에 머물면서 로스 선교사를 돕고 있을 때 로스 선교사는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1883년 심양교회에서 성대한 파송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파송 예배가 끝나자 로스 선교사는 얼마의 한글복음서와 전도문서 그리고 한문 성서를 그에게 전달해 주고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심양교회 교인들은 서상륜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양 교외 10리 밖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그가 고려문에 도착했을 때에 중국 관헌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여 그의 짐 속에 성서가 들어있으므로 그는 별정소라는 조선 측 검문소에 인도되어 구속, 투옥 당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별정소의 관리 김효순은 의주부의 관리로서 그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야간에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무사히 고향 의주까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서상륜의 고향 의주에 돌아왔지만 모든 책들을 압수당하고 말았으므로 그가 가지고 온 책은 몇 권되지 않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로스 선교사는 조선 조정을 고문으로 있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도움으로 인천 세관을 통하여 6천여 권의 한글 복음서를 서상륜에게 전하여 주었다. 이것을 받아 든 서상륜은 그 길로 서울로 입성하여 고향 친구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그의 전도를 받고 13명의 고향 친구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자 그는 너무 기뻐서 로스 선교사에게 서울에 다녀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로스 선교사는 만주 지방에서 행하고 있던 선교 사업이 너무나 복잡했던 고로 서상륜의 요구에 응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상륜의 끈질긴 간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1887년 가을 드디어 선편으로 서울 한강에 도착하였다.

이 때 서울에서는 1885년 아펜젤러와 함께 서울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미 14명의 세례 교인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서상륜의 공로가 적지 않았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로스 선교사는 서울에 이처럼 교회가 세워 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천 구년 십일월 팔일  
담임목사 손 중기



### 31.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야 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사62:6,7).

### 32.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히10:38).

### 33. 약한 것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34.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만드십시오.

구약성경의 느헤미야는 무기를 잡은 채 기도 하고 싸우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느4:23).

기도에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 35.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신약성경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었기에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마9:27-31).

### 36. 믿음의 밀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밀그림이 없는 기도는 무정란과 같습니다.

### 37. 모호한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하게 응답 받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 38.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기도는 기도 중의 최고 기도입니다.

### 39.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모세는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힘이 됩니다.

### 40. 점잖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장 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 향기로운 예물

### ● 십 일 조

교역자 : 최지혁 문중승 김성훈  
 장로 : 최상윤 진영만 송희중 옥 룡  
 안수집사 : 김희중 박동수 조윤기 장기술 김영근  
 권사 : 김재림 이정자 문채숙 김순심 임현옥  
 집사 : 양선숙 김준영 송미경 계경숙 전오례 손동욱 임연옥 손상원 이병욱 송숙란  
 윤경순 강성명 김선애 허성복 황애자 유수중  
 ♥♥♥♥ : 김영숙 김진선 조성준 이대성 무명 2

###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중기 최지혁  
 장로 : 옥 룡  
 안수집사 : 최재현 이병권 김영근  
 권사 : 김순심 서점순 양혜숙 박경남 김숙자  
 집사 : 손상원 김달삼 최성자 김부현 한정자 박종삼 김변순 오금례 박은원 김지현  
 김혜진 방연혁 김경순 강성명 박종관 민찬임 송병기 정영순 김천대 황두연  
 ♥♥♥♥ : 이영희 조병규 이성노 기연임 최선규 이영선 전경순 정근님 진선미 정해정  
 임인심 조리라 고광국 노병호 옥승주  
 대심방 : 이동식 김숙자 신진성 박금용 강태석 박성애 김숙경 한정자 차길자 최순희  
 김양선 김천대 윤희수 유금순 고용주 김영례 임종만 박성주 유자춘 서향임  
 박영애 김영월 김득자 김유연 이옥순 이금동 양정순 김효식 김남희 양혜숙  
 김성훈 장승준 손상원 김미숙 조윤기 김용덕 임순분 김명관

### ● 선교헌금

교역자 : 최지혁  
 장로 : 김문옥 옥 룡 송희중 최상윤  
 안수집사 : 박동수  
 권사 : 김재림 문채숙 권화숙  
 집사 : 정순영 김달삼 최성자 조정화 손상원 김천대 강성명 김영미 양선숙  
 ♥♥♥♥ : 사라여전도회

### ● 복지헌금

김숙경 옥 룡 임현옥 박동수 정순영 송희중 김달삼 최성자 최지혁

###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이정자 김숙경 최순희 김천대 조윤기 김중철 송희중 김영월 이재성 이재연 김재한  
 권화숙 김바다 김달삼 최성자

11월 13일 금요기도회 (리브가 여전도회)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	다	같	이
대표기도	.....	이	길	레
특송	.....	리브가	여전도회	일동
설교	.....	손	종	기
개인기도	.....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김복희 권사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전도	●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되게 하소서	합심기도
	● 대심방을 은혜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심방대원들을 붙들어 주소서	
개척	●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	박복임 집사
직분	●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교육기관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합심기도
	● 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혜와 인재와 물질을 허락 하소서	
국가선교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합심기도
	● 2010년 임원선출, 일꾼들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성도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합심기도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성도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합심기도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성도	● 병원임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합심기도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 제2차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순번	일자	성명	비고	순번	일자	성명	비고
1	10/6일	손종기	010-7283-8291	37	11일	박동수	010-5602-7559
2	7일	최지혁	010-3615-1638	38	12일	김용신	010-3008-6567
3	8일	문종승	010-7617-4070	39	13일	이귀남	062) 952-8590
4	9일	김성훈	016-627-7655	40	14일	임춘진	011-604-8516
5	10일	서향임	018-629-2785	41	15일	김신자	010-7752-8667
6	11일	전순이	010-2999-7540	42	16일	서금자	016-9225-2602
7	12일	이준호	062) 952-8590	43	17일	모순자	010-6610-5880
8	13일	김기태	010-4633-8667	44	18일	최옥기	010-4323-7101
9	14일	김문옥	010-2565-2602	45	19일	유금례	010-9455-9579
10	15일	김명관	011-640-9608	46	20일	이봉순	016-9601-3784
11	16일	이현일	011-625-6945	47	21일	황정선	016-640-9608
12	17일	이동만	011-609-0774	48	22일	임현옥	010-3907-2360
13	18일	곽세종	011-9607-9883	49	23일	장현자	010-3114-9886
14	19일	송희중	010-4370-7579	50	24일	조선경	010-5469-1670
15	20일	옥 룡	011-616-2360	51	25일	김복희	010-2622-9919
16	21일	김종철	010-7735-9917	52	26일	이난순	010-6310-2827
17	22일	최상운	010-5059-8475	53	27일	박미정	010-3619-0362
18	23일	김요상	011-602-0724	54	28일	이정자	010-5509-0809
19	24일	김희중	010-5468-1670	55	29일	서점순	010-8944-8640
20	25일	진영만	010-605-2902	56	30일	김숙자	010-2360-5214
21	26일	김태석	010-8777-2827	57	12/1일	김동해	019-406-2586
22	27일	오광록	010-7603-9851	58	2일	방정원	010-9474-2787
23	28일	유영만	010-3629-3477	59	3일	진윤희	010-7488-9851
24	29일	김영근	011-638-1538	60	4일	장미옥	010-7704-9917
25	30일	한만희	011-9739-0484	61	5일	문채숙	010-5643-0198
26	31일	손문옥	011-9606-6487	62	6일	양혜숙	010-6873-2437
27	11/1일	조윤기	016-681-3784	63	7일	김점자	010-6653-0559
28	2일	한경택	011-633-7200	64	8일	김숙경	010-8245-5064
29	3일	장기술	011-9604-0577	65	9일	허경자	011-9607-8475
30	4일	최재현	010-6231-4589	66	10일	방봉순	011-605-3310
31	5일	박의하	010-2231-4684	67	11일	황생자	010-9877-1729
32	6일	장승준	010-6609-2782	68	12일	권화숙	010-7708-4315
33	7일	이대남	010-2615-5064	69	13일	김순심	010-7721-3238
34	8일	김재한	011-617-0571	70	14일	김용덕	010-2636-2114
35	9일	서진옥	010-5446-5357	71	15일	유암덕	010-5339-1831
36	10일	이병권	010-6203-8640	72	16일	김정숙	010-2467-2113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2009년 가을 대심방 계획표

표 어: 심방대원 지극정성, 심방가정 은혜충만

일 시: 2009년 9월 28일(월)~11월 24일(화)

심방대원: 손종기, 최지혁, 전순이, 장로, 권사, 구역장, 심방장

날짜	구역	심방대원	날짜	구역	심방대원
9/28 (월)	1구역	손종기, 최지혁, 전순이 김요상, 황정선, 문채숙 구역장, 심방장	10/28 (수)	15구역	손종기, 최지혁, 전순이 김요상, 장미옥, 최옥기 구역장, 심방장
9/29 (화)	은광,아남 즐거운동산	김명관, 장미옥, 임현옥 구역장, 심방장	10/29 (목)	16,17구역	김명관, 임현옥, 방봉순 구역장, 심방장
10/6 (화)	2구역	김종철, 김점자, 양혜숙 구역장, 심방장	11/3 (화)	18구역	옥 룡, 황정선, 임춘진 구역장, 심방장
10/7 (수)	3구역	송희중, 유금례, 허경자 구역장, 심방장	11/4 (수)	19,20구역	김기태, 김신자, 박미정 구역장, 심방장
10/8 (목)	4,6구역	김태석, 이난순, 방봉순 구역장, 심방장	11/5 (목)	21,22구역	이현일, 모순자, 이정자 구역장, 심방장
10/12(월)~13(화)		전라노회 기간	11/10 (화)	열린교회 개척감사예배	
10/14 (수)	5구역	이현일, 임춘진, 이정자 구역장, 심방장	11/11 (수)	25구역	곽세종, 임현옥, 김순심 구역장, 심방장
10/15 (목)	7,8구역	이동만, 조선경, 김순심 김희중, 모순자, 장현자	11/12 (목)	24,26구역	김종철, 서점순, 김복희 구역장, 심방장
10/20 (화)	9,10구역	진영만, 서금자, 김복희 구역장, 심방장	11/17 (화)	천안 신대원 방문(순교기념관)	
10/21 (수)	11구역	최상운, 서점순, 황생자 구역장, 심방장	11/18 (수)	27,28구역	최상운, 김동해, 김숙경 구역장, 심방장
10/22 (목)	12구역	이준호, 이귀남, 권화숙 구역장, 심방장	11/19 (목)	28-1 29구역	김명관, 권화숙, 문채숙 구역장, 심방장
10/27 (화)	13,14구역	이동만, 유암덕, 김숙경 구역장, 심방장	11/24 (화)	영연스쿨 백두산업	김문옥, 서금자, 방정원 구역장, 심방장

- 기도로 미리 준비합니다(기도제목 기록표를 준비하십시오).
-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음료 외에 접대는 사양합니다).
- ➡ 가을 대심방 감사헌금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접대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감사예물로 대신합니다.
- 심방일에는 출타하지 않습니다(각 구역장은 상의하여 가정별 시간대를 정해주세요).
- 예배 중 전화코드를 빼 놓읍시다. 휴대폰도 꺼둡시다.
- 심방자는 시간을 엄수합니다(오전 9시까지 교회도착).